



“재활용 캠페인도 비대면으로...다 쓴 화장품 공병 택배로 보내세요”

## 테라사이클, 바닐라코와 비대면 화장품 공병 재활용 캠페인 실시

- 테라사이클, 바닐라코와 ‘클린 잇 제로 제로백’ 공병 재활용 캠페인 론칭...12월까지 바닐라코 매장 또는 온라인 수거 신청 통해 공병 수거 참여 가능
- 수거된 화장품 공병은 소각, 매립되지 않고 테라사이클을 통해 전량 재활용
- 테라사이클, 바닐라코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현재 6개 국내외 뷰티 기업과 연간 100톤 이상의 화장품 공병 재활용으로 자원순환 실천



# BANILA CO



<사진제공: 테라사이클>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기업 테라사이클(TERRACYCLE)이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바닐라코(BANILA CO)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화장품 공병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테라사이클은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바닐라코와 화장품 공병을 재활용해 업사이클링 에코백으로 만드는 ‘클린 잇 제로 제로백 캠페인’을 론칭한다. 소비자로부터 회수한 바닐라코 화장



폼 공병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테라사이클의 재활용 공정을 거쳐 업사이클링 가방 '제로백'으로 재탄생된다.

전세계 화장품 용기 중 40% 이상이 플라스틱 용기지만 복합재질로 이뤄져 있고, 화장품 용액으로 인해 세척이 어려워 재활용이 어렵다. 테라사이클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용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모두 재활용함으로써 바닐라코의 친환경 행보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12월 31일까지 바닐라코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에 동참하거나 온라인 수거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 바깥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캠페인 참여 고객에게는 바닐라코 공식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혜택 제공은 물론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공병 재활용 가방 '제로백'을 증정할 예정이다.

테라사이클코리아의 바닐라코 캠페인 담당자는 "오랜 기간 여성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바닐라코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병과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캠페인을 실시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화장품 용기 재활용 문화 활성화와 해양플라스틱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테라사이클은 이번 바닐라코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현재 국내외 6개 화장품 기업과 연간 100톤 이상의 화장품 공병을 재활용해 국내 자원순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끝>

###